

낙태경험에 관한 탐색적 고찰

강 명 선(인하대 석사) · 양 성 은(인하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낙태경험의 질적 구조를 파악하고, 낙태경험이 여성 개인의 삶과 그 가족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연구참여자들의 최초 낙태경험이 이후의 낙태 결정, 자녀 출산 및 양육, 부부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명의 30~40대 여성으로, 자료 수집은 2010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자료 외에 연구자는 면접 후 연구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특성에 대한 메모 및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현장일지를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의 낙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관계의 결과를 생각해보지 않음,” “황당하고 당황스러움,” “철이 없고, 무지했고, 너무 어렸음,” “과거 힘든 육아 경험,” “미래 육아에 대한 불안,” “자아성취와 육아에 대한 이분법,” “주변 상황과 관계를 고려한 선택,” “어쩔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 “나 혼자 해결해야 함,” “다시하고 싶지 않은 일,” “내 몸에 대한 통제,” “타인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같은 15개의 의미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를 “자신이 통제가능하다는 생각의 오류,” “지각한 현실을 토대로 한 실존적 불안에 의한 선택,” “불안 제거 후 자신 및 타인과의 단절을 경험함”의 주제로 조직하였다. 이로부터 여성의 낙태경험은 “성관계-임신-낙태-철저한 피임으로 연결되어지는 순환적 과정”이라는 핵심주제(essence)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낙태는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여성 개인이 내재화한 신념의 결과이다. 둘째, 낙태경험은 여성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자녀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하지만 실존적 불안에 부딪쳐 오히려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낙태경험은 친밀한 관계의 단절이 반복되는 순환적 경험이 된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낙태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작 낙태를 실제로 경험한 여성의 목소리가 소외된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미시적 질적접근을 통해 낙태가 여성 개인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낙태에 대한 거시적 담론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